

제83회 KISTEP 수요포럼

주 제 : 한국시니어리빙랩 운영을 통해 살펴본 사회문제 해결 사례와 교훈

담당자 : 여준석 부연구위원(T. 02-589-5277)

포럼 종합 요약

2018. 4. 11

1. 발표 주요 내용

□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 설립목적 및 수행사업

-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(이하 성남체험관)은 2007년 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성남시에 설립 되었으며, 현재 3개의 센터(고령친화R&D센터, 사용성평가센터, 홍보체험센터)로 구성 됨
- 성남체험관은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개발을 위한 기업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사용성평가서비스와 실증실 3실을 운영
- 성남체험관은 많은 시니어들이 방문하고 있으며, 1층에는 약2000여종의 고령친화제품을 전시하고 있으며, 2층은 시니어들의 커뮤니티활동 및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과 교육이 진행되며, 3층은 입주기업과 기술개발실(동작분석실, 생체계측실, 시험인증실, 재료시험실 등)이 있음

□ 한국시니어리빙랩 운영 목적 및 필요성

- 우리나라는 2017년 7월에 고령사회(전체인구중 노인인구비율이 14%이상)을 넘어 이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, '베이비붐세대'의 유입은 이를 가속화시키면서도 새로운 파워 소비계층으로 급부상될 전망
-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의료비부담증대, 치매, 낙상, 자살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,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(시니어)가 주체가 되는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
- 한국시니어리빙랩은 체험관에 건강, 교육, 커뮤니티, 사용성평가를 하러 오시는 시니어가 고령친화 입주기업 그리고 연구자와 한 공간에서 고령친화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같이 수행

□ 한국시니어리빙랩의 의의

- 한국시니어리빙랩은 소비자(시니어), 생산자(입주기업), 연구자(R&D센터)가 직접 만나, 시니어가 주도하여 '고령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험공간'으로 추후에는 체험관에서 지역사회로 확산시킬 전망이다

2. 주요 토론 내용

□ 시니어를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

- 국가적 현안인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 필요성 증대
 - 노인인구의 증가로 2060년까지 부양부담이 최고 250%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출산율이 증가하면 현재 20~30대 청년층이 약 30년 간 아이들과 노인들을 함께 부양해야 하는 '더블케어'시대 도래 예상
 - 고령층이 생산적이며 역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부양부담을 줄이고, 사회적 활력도 높일 필요가 있음
- ※ 생산가능 인구를 69세까지 상향조정할 경우, 부양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
- 과학기술을 통하여 건강하고, 보람 있는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, 노령층에 적합한 일과 일자리 개발

□ 시니어를 위한 과학기술적 접근 현황

- '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실천계획'에 따라 15개의 사회문제 해결형 다부처 R&D사업이 추진 중이고, 노령층을 위한 R&D사업*은 소수
- * 예: Active Aging을 위한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사업
- 과학기술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, 이에 대한 통계 및 현황자료 구축 필요
 - 고령층 대상 라이프스타일, 요구사항, 과학기술활용 실태 및 역량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필요한 기술/제품/서비스, 교육프로그램 발굴
 - 이를 위해 디지털기술/기기 활용실태,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도/활용역량 등에 대한 조사 필요

□ 한국시니어리빙랩 효과 및 의의

- 기술공급자 중심에서 노인 등 기술의 최종사용자 중심으로 과학기술혁신 패러다임의 전환 시도
- 정부주도의 단발적 R&D사업을 넘어, 최종사용자-개발자 간 지속적인 교류 및 문제해결을 추진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 구축
 -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노인을 이해하는 만남의 장과 지속가능한 테스트베드 플랫폼 기반을 구축
- 체험관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정책실험 및 시행착오를 지역혁신, 고령화 정책, 치매환자 돌봄, 요양원 관리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
- 관련 연구기관·기업 등으로부터 노인을 위한 제품·서비스의 사용자 평가 및 체계적인 수요 조사·분석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자생적 비즈니스 모델 구축

□ 한국시니어리빙랩 향후 과제

-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산업적 접근보다는 소외계층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노령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따뜻한 과학기술 구현에 관심 필요
 - 65세 이상 지하철 운임비 무료 정책의 경우 지하철 생활권이 아닌 노령층에게는 사각지대임
 - 노령층이 기술 습득 및 사회 참여를 통해 세대간 문화 및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과학기술 정책이 필요
- 리빙랩 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필요
 - 예산 집행의 유연성 확보, 정책 기획 및 평가체계 개선 등 기존의 R&D 및 정책추진체계 변화가 불가피

- 집, 공장, 사무실, 학교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사용자를 만나 혁신의 맥락을 이해하면서 공동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대안을 찾는 활동 필요
 - 사용자의 취향·욕구·인식·경험·행태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소통방식 및 도구 개발 필요
- 똑똑한 사용자의 조직화 및 참여 확대
- 개인의 민원 차원이 아닌 공공적 차원에서 기술개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용자, 관련 이슈를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조직화된 사용자의 참여가 필수
 - 리빙랩 활동에 사회·경제조직, 선도 사용자, 피짜·덕후 등 다양한 사용자들의 체계적인 참여를 유도
- 리빙랩 추가 구축을 통한 지역별 연계 체계 및 표본 확보 필요
- 고령층은 지역에 따라 문화 차이가 크지만 현재 성남, 대구, 광주 리빙랩의 연계가 미비하며 이에 지역별 융합연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
 -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서울 거점 기관 설립을 통해 표본 확보 및 적극적인 시니어 리빙랩 활동의 지원이 필요함